

10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15.78	↓ 코스닥	717.89
	(-6.12)		(-5.63)
↑ 금리 (미국 9년)	2.561	↑ 환율 (원·달러)	1472.00
	(+0.061)		(+11.50)

사립대 등록금
줄임상 움직임 속
국립대는 동결
03



지난해 4월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오토쇼에서 관람객들이 비야디(BYD) 부스에서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소재·전자·車까지 '차이나 공습' 경보

중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저가의 소비재 상품을 넘어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폰, 전기차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진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로봇청소기와 스마트폰은 물론, 자동차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트렌드에 민감한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당장 국내 기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향후 국내 산업 전반의 제조·소비 생태계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샤오미 등 中 기업 국내 공략 가속
로보락, 百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
BYD·샤오핑, 전기차 본격 진출
제조 등 국내산업 전반 타격 우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0.3년에 불과하다. 중국이 한국 산업 기술을 따라잡는데 몇 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의미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과 함께 풍부한 인적자원을 앞세워 한국 기술력의 턱밑까지 추격해왔다. 이를 중심으로 한국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전자업체를 중심으로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한때 '대륙의 실수'라고 불렸던 샤오미는 한국법인을 설립하며 현지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샤오미는 최근 한국법인인 샤오미테크놀로지 코리아를 설립했다. 2016년부터 한국에서 총판을 운영했던 직원을 중심으로 올해 법인을 설립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샤오미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스마트밴드 등에서 최근에는 전기차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로봇청소기 기업 로보락은 지난 1일

국내에 두 번째 플래그십 매장을 오픈했다. 올해 초 두 번째 플래그십 매장을 오픈한 로보청소기 점유율 국내 1위 업체 중국 로보락은 자체 플래그십 매장 외에도 전국 주요 백화점에 입점해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로보락은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에 이어 세탁건조기 제품을 선보이며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압박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7년전 중국 동풍자동차가 가성비 모델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가 철수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도 달라졌다.

테슬라와 세계 전기차 양강 구도를 형성한 중국의 BYD는 BYD코리아를 통해 올해 1월부터 국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제주 등을 중심으로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다. BYD는 이달 중 중형 세단 '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토3'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들 모델은 8%의 관세와 판매 인센티브, 전기차 보조금을 적용하면 국산 경쟁 제품보다 500만~1000만원 가량 저렴하게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BYD의 가성비는 규모의 경제와 배터리 자체 생산 등 부품 내재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에 기반해 다른 브랜드들이 쉽게 따라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중국 전기차 브랜드 샤오핑도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업계는 자율주행과 함께 배터리 기술을 확보한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부담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 시장 공략에 성공할 경우 현대차·기아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에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모 이명희 이마트 지분 전량매수

계열 독립 속도... SSG닷컴 지분정리 과제

직접 매입으로 책임경영 의지
이마트·자회사 실적반등 관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사진)이 모친 이명희 총괄회장의 이마트 보유 지분 전량을 사비로 매입하며 독립 경영 체제를 본격화했다. 증여가 아닌 직접 매입 방식을 택하며 책임경영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만큼, 이마트의 실적 반등과 자회사 정상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약 2140억 8630만 원을 들여 이명희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 전량을 인수하며 신세계그룹의 계열 분리를 위한 본격적인 지분 정리에 나섰다.

이번 거래로 기존에 이명희 총괄회



장이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 지분 10%가 정 회장에 넘어가면서, 이마트에 대한 정 회장의 지분율은 18.56%에서 28.56%로 증가했다.

이번 지분 매수를 통해 정 회장은 독자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단계를 밟았다. 공정거래법 제3조의 2에 따르면, 계열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인(및 그 친족)의 해당 계열사 지분율이 상장사의 경우 3% 미만, 비상장사의 경우 10%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 매수로 이명희 총괄회장의 이마트 보유 지분율은 0%가 됐다. 이제 정 회장이 이마트 계열의 완전한 독립

을 이루기 위해 남은 과제는 동생 정용경 회장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SSG닷컴 지분 정리뿐이다. 현재 SSG닷컴의 지분은 이마트가 약 45.58%, 신세계가 약 24.4%를 보유하고 있다.

정 회장이 개인적인 사비를 통해 모친의 이마트 지분을 매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 회장이 독립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 회장은 이명희 총괄회장의 증여를 통해 이마트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지난 2020년 이명희 총괄회장은 당시 정용진 부회장과 정용경 총괄사장에게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해 그룹 내 경영권 승계를 명확히 한 바 있다. <2면에 계속>

/안재선 기자 wotjs4187@



긴장감 도는 대통령 관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전술복과 헬멧을 착용한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强달러 재점화... 원·달러 환율 최고 수준

美 트럼프 '경제 비상사태 검토'에
고용지표도 시장 예측 크게 웃돌아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규모 관세 정책이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환율은 트럼프의 '경제 비상사태 선포 검토' 소식과 미국의 고용률 호조에 힘입은 달러 강세 영향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12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0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종가)보다 11.50원 상

승한 달러당 1472.0원에 야간 거래(오전 2시 종가)를 마쳤다. 이는 올해 주간 거래와 야간 거래 증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앞서 지난 7일 환율이 1450원 수준까지 내린 지 3일 만이다.

최근 달러의 약세 요인이었던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된 데 이어, 미국의 고용지표도 시장 예측을 크게 웃돌면서 달러가 빠르게 강세 전환한 모습이다.

앞서 지난 7일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정책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현지 보도에 힘입어 달러당 1453.5원까지 하락(달러 가치 하락)했

다. 트럼프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달러는 이날 약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8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정책의 정당화를 위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는 빠르게 강세 전환했다. 타 통화 대비 달러 가치 지표인 달러인덱스(DXY)는 109.23(100보다 높을수록 상대적 달러 강세)까지 상승했고, 같은 날 원·달러 환율도 장중 1464원까지 치솟았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메트로 한줄뉴스



- ▲尹대통령 연봉, 3% 오른 2억6200만원... '탄핵 심판'에도 월급 계속 /사진 뉴스
- ▲조국혁신당 "윤석열 버티기에 내수 침체... 대 국민 지원금 추진"

- ▲여 "민주당 '카톡 검열' 국민 상대 공포정치"... 야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 ▲여 "공수처, 대통령 경호구역 무단 침입은 법 위반 행위"

- ▲오세훈, 내란 선전 고발한다는 민주당에 "민주당 개명하라"
- ▲나경원, 야 '카톡 내란선전죄 고발' 방침에 "나를 1호로 고발하라"